

◆ 북미

- 미국 보험중개사 AON, 두개의 사업부문 매각
- 도요타 자동차 광고, 보험사기 조장 비난
- 미국, 보험미가입 암환자의 사망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

◆ 유럽

- Swiss Re, 2007 거대재해 손실 추정치 발표
- 영국, 2006 기업성 손해보험 현황 및 전망
- UN 기후협약총회, 차기 기후협약에 대한 로드맵 채택

◆ 일본

- 손보험회장, 적극적 해외 진출의 필요성 강조
- 다이이치생명, 주식회사 전환을 위해 EV 공시 예정

◆ 중국

- 중국 사회보장제도 구체적 실행계획 미흡
- 보험사 자산운용 규제 완화로 이익실현 빨라져
- 보감위의 정책적 지원이 중국보험시장에 미친 영향

◆ 국제금융시장 주요 지표



【 North America Insurance Industry News 】

□ 미국 보험중개사 AON, 두개의 사업부문 매각

- 세계적인 보험중개사인 AON은 지난 월요일 두개의 사업부문을 27억5천만 달러에 매각하기로 합의했으며 매각대금은 자사주 매입에 쓰이게 될 것이라고 발표함.
 - AON은 Combined Insurance 사를 24억 달러에 ACE그룹에 매각하였으며 Sterling Life 사를 3억 5200만 달러에 Munich Re에 매각함.
 - 이들 회사의 매각은, 수익축소와 자본집약화가 진행 중인 보험인수 사업부문을 축소하고 사업분야를 단순화하기 위해 AON이 추진 중인 계획의 일환으로 진행됨.
 - AON의 CEO Greg Case는 보험중개와 컨설팅 업무에서의 역량을 확대하는 것이 전략적으로 중요할 것이라고 언급함.
- Combined Insurance사는 400만 명 이상의 보험계약자에게 개인상해보험과 건강보험을 제공하고 있으며, ACE그룹에의 매각작업은 2008년 2/4 분기에 마무리될 것으로 보임.
- Sterling Life사는 노인을 위한 건강보험 분야의 선두회사로 2007년 매출은 8억 달러 이상으로 예상되며, Munich Re에의 매각작업은 2008년 1/4 분기에 마무리 될 것으로 보임.
 - Munich Re는 Sterling Life사를 매입함으로써 미국 시장에서의 생명, 건강보험 사업을 보완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함.
 - DZ Bank의 한 애널리스트는 Sterling Life사가 성장시장인 건강보험시장에서 왕성하게 활동하고 있기 때문에 Munich Re의 인수는 적절해 보인다고 언급함.

(Washington Post, 12/17)

□ 도요타 자동차 광고, 보험사기 조장 비난

- 미국 보험산업 관계기관들은 도요타 자동차의 광고가 보험사기를 부추기고 있다고 주장함.
 - 문제의 광고는 새로운 도요타 자동차를 구입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기존의 자동차를 차고 지붕에 던져버리거나 철제빔이나 나무 밑에 깔리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음.
 - 메사추세츠 보험사기국(The Insurance Fraud Bureau of Massachusetts)과 보험사기 방지협회(Coalition Against Insurance Fraud) 등은 도요타의 광고가 “현차의 보험금이 도요타 자동차 구매를 돕는다”는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다고 주장함.
 - 이들 단체의 한 관계자는 중고 자동차를 매매하는 대신 망가트리는 행동을 보여주는 것은 새 차를 위해 보험금을 받으라는 암묵적인 메시지로 보인다고 언급함.
 - 두 단체는 도요타사에 문제의 광고를 중단하라는 서신을 보냈으나 도요타사는 공식적인 답변을 하지 않고 있음.
 - 도요타 자동차의 대변인은 모든 항의 서신을 검토할 것이며 광고를 수정하거나 주의문구를 삽입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이야기 하였으나 광고의 내용은 유머일 뿐이며 글자 그대로 받아들이지 말아달라고 강조함.
- 보험사기 방지협회의 관계자는 지난 10년간 보험사기에 대해 대중이 관대해져 왔다고 주장함.
 - 한 조사에 따르면 보험사기를 저지르는 것이 용납될 수 있다고 답한 성인 응답자가 1997년에는 21%였던 반면 최근에는 26%로 상승함.
 - 그는 도요타사에 보낸 서신에서 도요타의 광고는 무해한 유머가 절대 아니며, 보험사기는 높은 비용을 부담시키고 선량한 소비자의 보험료를 상승시킨다고 지적함.

(Boston Grove, 12/19)

□ 미국, 보험미가입 암환자의 사망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

- 미국 암학회(American Cancer Society)는 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암환자가 5년 내에 사망할 가능성이 보험에 가입된 사람들의 두 배에 가깝다는 연구결과를 발표함.
- 또한 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사람들은 암검사(Cancer Screening Test)를 받도록 권고받을 가능성도 적은 것으로 나타남.
- 미국의 암 사망자 중 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사람들의 비율은 4%정도에 불과하지만, 미국 암학회의 이번 연구결과는 최근 쟁점이 되고 있는 건강보험제도 개편 논의에 있어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함.
- 연구결과가 발표된 저널에서 미국 암학회 회장은 건강보험 안전망의 허점을 보완할 수 있는 구체적 행동들을 촉구함.
- 이번 연구는 암치료를 제공하는 1,500개 병원으로부터 65세 이하 성인암환자 60만 명의 자료를 분석해서 이루어졌음.
- 연구자들은 환자들의 5년간 기록을 추적하였으며, 보험미가입자의 35%가 5년 내에 사망하는 반면 보험가입자의 경우는 23%만이 사망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나 보험 미가입자의 암 사망률이 보험가입자에 비해 1.6배 높다는 결론을 도출해 냄.
- 전문가들은 이번 연구결과가 암진단 이후 치료과정에서의 질적 차이 문제도 보여준다고 주장함.
- 하버드 의대의 John Ayanian 교수는 암이 조기 발견된 환자 사이에서도 진단이후 결과가 다르게 나타나는 것은 암치료의 질적인 차이에 있어서도 문제가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설명함.
- 한편 암환자를 두고 있는 930가구를 대상으로 Kaiser Family Foundation에서 지난해 실시한 설문조사에서는 약 1/4가량의 가구가 비용 문제로 인해 치료를 늦추거나 포기하고 있다고 밝힘.

(New York Times, 12/20)

【 Europe Insurance Industry News 】

□ Swiss Re, 2007 거대재해 손실 추정치 발표

- Swiss Re의 2007 거대재해로 인한 손실 추정치에 따르면, 자연재해 및 재난 등 거대재해로 인한 사망이 2만 여명에 달하며 전세계적으로 610억 달러의 손실액이 발생하였으며, 보험회사들은 250억 달러의 손해를 기록할 것으로 나타남.
- 10억 달러 이상의 손해가 6건 발생하였으며, 보험손실액은 전년보다 9억 달러 증가하였고, 피해규모 상위 3개 사고는 모두 유럽에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남.
- 인명피해와 관련하여, 방글라데시는 사이클론, 산사태 등 여러번의 자연재해를 겪었는데 사이클론 Sidr로 4천명 이상이 사망하였음.
- 보험손실액 중 자연재해로 인한 손해액이 220억 달러를 초과하며, 인위재난으로 인한 손해액이 2억 달러를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남.

<표 1> 2007년 보험손실 상위 6개 거대재해

보험손실액(USDm)	사고개시일	재해종류	국가
5,859	2007.1.18	시속 190Km의 강풍을 동반한 겨울폭풍 Kyrill	유럽
2,597	2007.6.25	폭우, 홍수	영국
2,077	2007.7.20	폭우, 홍수	영국
1,562	2007.4.13	폭풍, 폭우, 홍수	미국
1,100	2007.10.21	캘리포니아 산불	미국
1,000	2007.6.7	뉴사우스웨일즈주 폭풍, 홍수	호주

<표 2> 2007년 인명피해 상위 5개 거대재해

실종·사망자수(명)	사고개시일	재해종류	국가
4,140	2007.11.15	사이클론 Sidr, 폭우, 홍수	방글라데시
1,500	2007.7.16	폭우로 인한 홍수	인도, 방글라데시
913	2007.8.15	지진	페루
678	2007.8.2	몬순호우, 홍수, 산사태	방글라데시
610	2007.8.7	폭우로 인한 홍수	북한

(Swiss Re , 12/18)

□ 영국, 2006 기업성 손해보험 현황 및 전망

- Datamonitor는 2006년 영국의 기업성 손해보험 시장을 분석하고 보험료 전망을 다룬 “영국 기업성 손해보험”이라는 분석자료를 발표함.
- 동 보고서에 따르면, 대부분의 종목이 연성시장 환경으로 자동차, 배상책임부문, 재물보험 부문에서만 근소한 성장을 이룬 결과, 손해보험 총 보험료 성장률은 전년대비 1.1% 감소한 반면, 수익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 2006년 보험영업이익은 14.8억 파운드의 흑자를 기록하였는데 이는 지난 10년 간의 수익 중 가장 성과가 큰 것으로 종목별로는 금전손실보험 및 상해보험의 성과가 두드러진 것으로 나타남.
- 기업성보험은 배상책임보험, 기업성 재물보험, 금전손실보험, 기업성 자동차보험에서 보험료 감소를 기록함에 따라, 영국 기업성 손해보험의 보험료 성장률은 3.3% 하락한 것으로 나타남.
 - 기업성보험시장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배상책임보험의 보험료는 58억 파운드로 6.3% 하락하였는데 이는 주로 경쟁 심화에 따른 보험료 인하에 기인하며,
 - 그 다음으로 큰 비중인 기업성 재물보험과 기업성 자동차보험 또한 성장률이 3.4%, 1%씩 각각 감소한 것으로 나타난 반면, 단체 상해 및 건강보험 시장은 2.5% 성장한 것으로 나타남.
- 기업성보험의 판매채널은 브로커를 포함한 독립중개인 채널의 판매비중(83%)이 가장 크며 2003년에 비해 1% 비중이 감소하였으나, 여전히 영향력 있는 판매채널로 이는 고액의 보험료를 납부하는 기업 고객은 상품 가입시 독립적인 채널로부터의 상담을 원한다는 사실을 반영함.
- 한편, 2012년 보험료 규모는 약 221억 파운드에 달할 것으로, 배상책임보험 시장이 성장을 주도할 것이며 2007년~2012년 보험료 연평균성장률은 5.3%가 될 것으로 전망함.

(Datamonitor, 12월)

□ UN 기후협약총회, 차기 기후협약에 대한 로드맵 채택

- UN은 협의에 난항을 겪던 ‘UN 기후변화협약 총회’(12/3 ~ 12/15일,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차기 기후협약에 대한 로드맵이 채택되었다고 밝힘.
- 지난 13일 이보 드 보에르 UN 기후 협약 사무총장은 온실가스배출 감소와 관련 미국과 EU가 교착상태에 빠졌다는 소식을 전하며, 이와 같은 대립으로 새로운 온난화 방지 협약을 만드는 계획이 무산될 위험에 처했다고 경고한 바 있음.
 - 미국은 교토 의정서의 뒤를 이어 2020년까지 선진산업국의 온실가스 배출을 25%에서 40%까지 줄인다는 새로운 협약의 비준을 거부했음.
 - EU와 기타 국가들은 지구온난화 억제의 당위성을 내세우는 과학자들의 논리를 주장하는 한편, 미국과 일본을 포함한 몇몇 국가는 특정한 목표를 포함하는 것은 협의의 범위를 제한시키게 될 것이라고 주장하며 ‘자율이행’을 내세움.
- 그러나 앨 고어 전 미 부통령과 반기문 사무총장 등의 독려로, EU가 2020년까지 선진국들이 실천해야 할 구체적인 온실가스 감축 행동강령 주장을 포기하고 15일 결국 미국이 합의에 참여하겠다는 선언을 함에 따라 로드맵이 합의되었음.
 - 한편 중국은 ‘측정·보고·확인이 가능한’ 온실가스 배출감축 방안을 찾는다는 데에 동의했으며, 인도는 지구온난화에 대한 ‘선진국 책임론’을 제기하며, “개도국이 기후변화 문제에 대처할 수 있게 선진국이 재정 및 친환경 기술 지원을 해 달라는 요구를 관철시켰음.
- 총회는 참가국들이 ‘향후 2년간 협상을 거쳐 2009년 말 코펜하겐 기후변화 총회에서 각국의 구체적인 온실 가스 감축 목표와 방법을 결정한다’는 대원칙에 합의한 채 폐막되었음.

(Budapest Business Journal , 12/17)

【 Japan Insurance Industry News 】

□ 손보험회장, 적극적 해외 진출의 필요성 강조

- 일본 손해보험협회의 에가시라 토시아키 회장(현 미츠이스미토모해상 사장)은 지난 20일 손해보험업계를 둘러싼 환경변화에 대한 기자 설명회를 개최함.
- 동 설명회에서 협회장은 “저출산 고령화의 영향 등으로 국내 손해보험사업은 성숙한 시장이 되고 있다”고 지적하였으며 또한, “향후는 해외진출과 타 금융 사업의 진출 등을 전향적으로 생각할 필요가 있다”고 사업 확대의 필요성을 강조함.
- 한편, 국내 손보시장의 포화상태에 대하여 합병 및 재편 등 규모 확대로 극복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지금은 보험회사의 니즈가 높지 않다”라고 명확하게 부정하였음.
 - 2001~2004년에 잇따른 대형 손해보험의 합병 및 재편은 “규모의 확대를 통해 사업비 등의 절감을 추가하는 것으로 국제 경쟁력을 갖추는 것이 목적이었다”고 설명하였으며,
 - “현재는 보험금의 부적절한 미지급 문제를 계기로 신뢰 회복을 위한 모집 및 보험금 지급 체제의 개선이 급선무이며, 규모의 경제를 추구하는 것은 넌센스다”라고 지적함.
- 또한, 보험금의 부적절한 미지급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으로 보험 계약내용이 기재된 ‘보험약관’을 알기 쉽도록 편의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가이드라인을 올해 안에 공표한다고 설명함.

(FujiSankei Business i. 12/21)

□ 다이이치생명, 주식회사 전환을 위해 EV 공시 예정

- 다이이치(第一)생명보험은 지난 19일 생명보험회사의 내재가치를 나타내는 지표의 하나인 EV(Embedded Value: 내재가치)를 2008년 3월말 결산부터 공시하기로 밝혔음.
 - EV는 국내외 생명보험 주식회사 기업이 주요 실적 지표로서 공시하고 있는 것으로, 다이이치생명은 2010년도 상반기에 상호회사로부터 주식회사로 전환할 방침을 발표한 바 있어 EV의 공시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함.
- EV는 ‘수정순자산가치’에 ‘보유계약가치’를 더한 것으로 생명보험 사업의 특징인 계약기간의 장기성을 고려한 지표로 생명보험회사의 내재 가치의 실태를 반영하고 있음.
 - 또한 유럽을 중심으로 선진국의 생명보험회사에서 폭 넓게 채택되고 있어 투자자가 투자 판단의 참고로서 이용하고 있음.
- 일본내에서는 2002년에 주식회사로 전환한 다이토(大同)생명보험이 같은 해 3월말부터 일본 생명보험회사로 처음으로 EV를 공시한 바 있음.
 - 현재는 다이토생명을 산하에 보유한 T&D홀딩스 이외에 소니생명보험 등 주식회사 형태를 취하고 있는 생명보험회사가 EV를 공시하고 있음.
- 다이이치생명은 EV가 투자자에게 중요한 설명자료이기 때문에 주식회사로 전환하기 위해서 EV의 공시 방침을 결정했으며, 주식회사 전환에 대비하여 사전의 정보공시가 필요하므로 조기에 공시를 추진한다는 방침임.
 - T&D홀딩스의 2007년 3월말 EV는 2조 1333억엔이며, 다이이치생명은 이보다 상회할 수준일 것으로 전망됨.

(FujiSankei Business i. 12/20)

【 China Insurance Industry News 】

□ 중국 사회보장제도 구체적 실행계획 미흡

- 중국의 사회보장제도를 논할 때, 장기목표는 명확하게 설정돼 있으나 구체적인 실행계획이 미흡한 것으로 전문가들은 진단하고 있음.
 - 중국 사회보장제도의 장기목표는 '기본적으로 다양한 자금을 확보하고, 보장방식을 단계화 하며, 권리와 의무가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하는 사회보장 시스템을 갖추는 것'이나, 구체적인 실행계획이 마련되지 않고 있다는 점 때문에 중국 정부의 의지가 의심받고 있는 실정임.
- 실행계획에 있어서 가장 취약한 부분은, 어떤 계층에 어떠한 보장을 시행할 것인지에 대한 목표설정이 안 돼 있다는 것임.
 - 현재 중국 사회보장제도는 보장과 보험이 혼재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국민들이 어떠한 권리를 보유하고 있으며, 사회보장이 국민의 어떤 권리를 보장해 주고 있는지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어 매우 혼란스러운 상태임.
 - 뿐만 아니라 어디까지 정부가 보장하고 어디까지 개인이 스스로를 준비해야 하는지에 대한 개념이 전혀 없어 당연히 보장받아야 할 부분에서는 전혀 그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되고, 보장이 필요 없는 곳에 과도한 보장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빈발하고 있는 것임.
- 또 하나의 문제점은 단계별 목표설정이 안 돼 있다는 점으로 중국 경제는 빠르고 급속히 변화·발전하는데 경제 발전과정에서 어느 정도의 사회보장 수준이 중국인들의 경제생활에 가장 적합한지에 대한 연구가 안 돼 있어 장기적인 사회보장 계획이 수립되지 못하고 있는 것임.
 - 사회가 변화하면서 문제가 발생하면 그에 대한 응급 처방전격 규정만 양산해 내고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 가장 큰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음.

(중국경제시보, 12/21)

□ 보험사 자산운용 규제 완화로 이익실현 빨라져

- 일반적으로 보험회사가 회사설립 후 이익을 발생시키기까지 7년 이상이 걸리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중국의 경우 시장의 빠른 성장과 관리당국의 자산운용규제 완화로 일부 신설생보사들은 그 기간이 단축되어 조기 이익을 실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 보감위 대변인 웨리(袁力)는, 10월 말 기준 중국 내 보험회사가 실현한 자금운용수익률은 2,422억 위안으로 평균수익률이 11%에 육박하고 있다고 설명함.
 - 설립 4년차인 성밍생명(生命人壽)의 경우 금년에 이익실현이 가능하다는 예상 결산보고서를 공개하였으며, 설립된지 겨우 2년에 불과한 양광손해보험(陽光財險)의 경우도 107억 위안의 영업이익을 실현했다고 공시함.
 - 한 보험회사 관계자에 따르면, 보감위로부터 홍콩투자자 자격을 획득한 20여 개 보험회사 중에는 조기에 이익을 실현한 보험회사가 대부분 포함돼 있으며, 특히 성밍생명의 경우 홍콩주식시장 투자인가를 받은 후 높은 수익률을 올릴 수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음.
- 업계 전문가들은 신설보험사의 이익실현 주기가 빨라진 것은 자산운용 분야에서 높은 수익을 창출해 낼 수 있었기 때문으로 풀이하고 있는데, 중국 보감위는 지난 해 이후 보험회사 자산운용 규제 완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들을 시행해 오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음.
 - 특히 보험회사의 사회기초시설 건설에 간접투자를 가능토록 하였고, 상장되지 않은 상업은행의 지분 보유가 가능하도록 길을 터 주었을 뿐만 아니라,
 - 보험자산관리공사나 전문투자기구를 통해 해외자산 투자를 허용하는 등의 조치를 취함으로써 보험회사의 자산운용 수익율 제고에 대한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음.

(매일경제신문, 12/20)

□ 보감위의 정책적 지원이 중국보험시장에 미친 영향

- 지난 2007년은 중국 보험시장이 빠르게 성장한 한 해였을 뿐만 아니라 제도적 지원이 보험시장을 활성화 하는데 많은 기여를 한 해였던 것으로 평가 받고 있음.
 - 이는 수년 전부터 보감위가 보험회사의 지불능력, 조직정비, 시장행위 등 3대 중점관리 분야를 지정하고 이에 대한 강력한 감독관리를 시행해 온 덕에 지금은 시장질서가 어느 정도 확립되었기 때문임.
- 지불능력 관리감독에 있어서는 분야별 감독이 이루어진 점이 눈에 띄는데, 보감위는 지불능력 감독기준을 정하고 지불능력감독표준위원회를 설립하여 이를 통해 감독표준을 적극적으로 이행하도록 보험회사를 독려했음.
 - 또한 금년 6월 보감위는 <지불능력 강화를 위한 관리업무에 관한 통지>를 발표하고, 지불능력이 관리표준에 이르지 못하거나 그럴 가능성이 있는 손해보험회사에 대해 증자, 전략적 투자자 유치 등의 조치를 취하도록 유도함으로써 보험회사의 지불위험을 초기 예방하는 효과를 거두었음.
- 또한 구조조정 분야에 있어서도 상당한 성과를 거둔 것으로 나타났는데, 금년 초부터 보감위가 발표한 <보험회사의 독립이사 관리방법>, <보험회사 관련 거래관리 잠정 시행방법>, <보험회사 주권 관리방법> 등의 규정으로 보험회사의 조직정비가 원만하게 진행되면서 구조조정과 개혁에 속도를 내게 된 것임.
- 한편, 시장행위에 대한 관리감독에 있어서는 보험중개시장에 대한 특별감사를 실시하여 시장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를 한 186개 보험중개회사에 대한 행정처벌 조치를 취한 바 있으며, 그 결과 감독당국으로부터 징계조치를 받은 사람만도 144명(고위관리직 33명 포함)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음.

(중국증권보, 12/21)

【 Financial Key Indicators 】

구분		06년말	07.12.7(금)	07.12.14(금)	07.12.21(금)	전주대비
금리 (%)	韓 국고채(3년)	4.92	6.11	5.89	5.81	-0.08
	美 10년국채	4.71	4.11	4.24	4.17	-0.07
	英 10년국채	4.73	4.64	4.79	4.64	-0.15
	日 10년국채	1.68	1.58	1.56	1.56	-
주가	韓 KOSPI	1,434.46	1,934.32	1,895.05	1,878.32	-0.88%
	韓 KOSDAQ	606.15	747.65	725.53	697.46	-3.87%
	美 DJIA	12,463.15	13,625.58	13,339.85	13,450.65	+0.83%
	美 Nasdaq	2,415.29	2,706.16	2,635.74	2,691.99	+2.13%
	英 FTSE	6,240.90	6,554.90	6,397.00	6,434.10	+0.58%
	獨 DAX	6,596.92	7,994.07	7,948.36	8,002.67	+0.68%
	佛 CAC40	5,541.76	5,718.75	5,605.36	5,602.77	-0.05%
	日 Nikkei225	17,225.83	15,956.37	15,514.51	15,257.00	-1.66%
	中 상해종합	2,675.47	5,091.76	5,007.91	5,101.78	+1.87%
	대만 가권	7,823.72	8,722.38	8,118.08	7,941.44	-2.18%
	홍콩항셍	19,964.72	28,842.47	27,563.64	27,626.92	+0.23%
환율	원/달러	929.60	922.90	924.50	941.20	+16.70
	원/100엔	781.83	828.94	823.09	831.49	+8.40
	엔/달러	118.90	111.33	112.32	113.20	+0.88
	달러/유로	1.3148	1.4641	1.4629	1.4323	-0.0306
	위안/달러	7.8135	7.4135	7.3675	7.3690	+0.0015